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6년도 표어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 도피성

(여호수아 20:1-21:45)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도피성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갈 수 없다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성장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특별하고도 자랑스러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 열두 명의 정탐꾼 중 갈렙은 헤브론을, 여호수아는 딘녓세라를 보고 황홀해 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 받았을 때 그 성들을 몹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열두 지파에게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핫, 게르손, 므라리, 아론의 자손이 구별되어 네 가족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 중에서 48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등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특별 명령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명령은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도피성은 인간들의 악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살인한 사람들을 피신토록 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결코 살인자를 보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친 사람은 죽임을 받아야 하지만 고의성이 없이 사고를 낸 사람의 생명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법에 따라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시민법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입니다. 그러나 시민법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미국 지폐에는 'In God we trust'라고 써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도, 인간관계도 하나님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개인이나 제도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도피성 제도는 붕괴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사회에서는 가정 윤리나 사회 질서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 4.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도피성 제도는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도피성 사이엔 분명한 차이점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명령하실 때는 그 곳으로 가는 도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신 19:3). 오늘날도 그리스도께 오려는 이들에게 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의 담을 헐고 문턱을 낮추어야 합니다.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만은 항상 열려 두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인간들을 향해 팔을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갈 수 없다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레위족에게 분배된 48개의 성은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있어서 레위족의 봉사과 교육이 넓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분깃이 없었지만 오히려 제사 직분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분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레위족이 흩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 결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지은 죄로 인해 고난을 받을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도피성이 과실치사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받으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한 이들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영원한 자유를 누리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1. 인간가치를 강조한 도피성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세상에서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가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모든 일은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실은 선한 동기로 시작한 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한 율례를 모세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출 21:12-13). 우발적인 살인자인 경우 성소로 피하게(대상 1:51, 2:28)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유해 식품 제조, 수질 오염, 낙태, 마약, 비난, 저주 등 불리적, 정신적, 경제적, 정치적 폭력은 모두 살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요 대적 행위입니다.

### 2. 우주적인 법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들 중에 거하는 외국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주적인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법이 자국의 권익만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외국인도 유대인과 같은 권리를 갖고 살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인간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편협한 국수주의와 이기적인 지방색은 비성경적입니다.

### 3. 신본주의 법

도피성 제도는 모든 시민생활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일반

· TV : 케이▲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한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2006 사명자 대회 발대식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기도와 전도 대회인 2006 사명자 대회가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발대식을 갖고 시작된다.

50일 동안 계속되는 사명자 대회 기간동안 성도들은 24시간 연속 기도(웨스트민스터 홀), 매일 오전 오후 10시에 드리는 열열이 기도, 특별새벽기도(11월 20일-25일), 그리고 태신자를 작정하여 기도하고 전

도하기에 힘쓰고 1명 이상 새생명 낚기 운동에 동참하여 노방전도, 축호전도, 문서전도를 활발히 벌여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말씀과 사랑, 뜨거운 기도가 넘치는 2006년 사명자 대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 2006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 예선:10월22일(주일) 본선:10월27일(금) 오후 7시

2006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다가왔다. 이번 전교인 성경암송대회는 디모데 전서를 본문으로 10월 22일(주일) 각 교회학교 별로 예선을 치르고 여기서 선발된 이들이 10월27일(금) 오후 7시 본선을 갖는다.

2-5국, 영어부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채점 기준은 암송범위 및 정확도 70%, 태도 20%, 반응 10% 이다. 본선에서 입상한 이들은 10월29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을 하며 암송도 한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은혜로운 성경암송대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본선은 3개조로 나누어 진행되며 교육1국, 교육

# Pilgrims' Vision Tour 섬김위원 조직

## 기도로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10월30일부터 11월11일까지 이스라엘과 이집트 터키 그리스 등지의 산재한 기독교 유적지를 둘러보고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하고 비전을 받게 될 서울 교회 성지순례단의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울 섬김위원 조직은 다음과 같다.

- 각 차량봉사책임
- 1호차  
진행팀: 정동학  
봉사팀: 김정희, 최종희  
조 장: 임상현, 이찬호, 장인원, 최차순
- 2호차  
진행팀: 박명철  
봉사팀: 안분선, 나상민  
조 장: 이영기, 배재송, 이은옥, 나미용
- 3호차  
진행팀: 최양진  
봉사팀: 남태순, 양정실  
조 장: 김현영, 홍증표, 박진희, 최미아

- 단장: 오정수 장로
- 예배예전분과: 박두영 장로(차장-이해순)
- 기획진행분과: 임상현 장로  
(차장-정동학, 박명철, 최양진)
- 기록촬영분과: 이영기 장로(차장-홍증표)
- 봉사질서분과: 이관규 장로  
(차장-김정희, 안분선, 남태순)
- 의료건강분과: 김진숙 원장(차장-나미용)

## 피택 집사 · 권사 시험과 면접

### 10월26일(목) 오후 7시

10월 26일(목) 오후 7시에 피택집사와 권사 시험이 801호에서 실시된 후 면접이 501호(피택권사), 502호(피택집사)에서 있다.

## 협동 권사 · 집사 교육 면접

### 10월27일(금) 오전 10시

협동 권사 집사 교육과 면접이 10월 27일(금) 오전 10시에 501호(협동집사), 502호(협동권사)에서 있다.

# 에바다부 수화 찬양제 열려

## 11월18일(토) 오후7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에바다부(부장 안인호 집사)는 수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바다부 수화찬양제'를 개최한다. 수화 찬양제는 청인 및 농인으로 구성된 30명의 찬양대가

서고 외부에서 수화찬양팀이 찬조 출연한다. 에바다부 수화찬양제 연습은 10월 초부터 시작한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

# - 사해와 쿨란 -



사해사본과 쿨란동굴

사해 북단 해안 변에 위치한 쿨란(Qumran)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염도로 인해 주변의 바위가 바스라지고 있는 죽음의 땅, 염성으로 알려져 있다. 1947년, 성경 고고학계의 최대 사건으로 평가되는 '사해 사본(쿨란 사본)'이 발견된 동굴이 쿨란 지역 해안절벽에 분포해 있다.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 헤매던 한 소년이 동굴 속에 돌맹이를 던졌다가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는 그 안에서 양가족을 꿰매서 이은 두루마리를 찾아내었고, 그 신비한 두루마리들은 고고학자들에 의해 구약성서의 사본들로 밝혀졌다. 쿨란 일대에 흩어져 있는 동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답사와 발굴을 진행하여 273개에 달하는 동굴을 발견하였고, 놀랍게도 바위 아래 땅 속 깊은 곳에는 쿨란 공동체가 살았던 옛 도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쿨란 공동체에서 찾아낸 두루마리들에는 '에스터서(Esther)'를 제외한 구약성서가 모두 들어 있었으며, 이곳에서 나온 구약성서는 오늘날의 구약과 거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이 두루마리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기증되어 예루살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쿨란에서 내려다보이는 사해(Dead sea)는 해수면보다 400여 미터 낮은 고르스(Ghors)라고 부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사해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창 13:10-19)가 가라앉은 곳으로, 강물이 계속 흘러들어 오지만 빠져나갈 곳이 없이 고여 있어 사실상 죽은 호수에 가깝다.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사해 상공에는 새가 날지 않으며, 사해 주변에는 걸으려는 먹음직스럽지만 열매를 따면 풍선처럼 쪼그라드는 '소돔애플' 나무가 즐비하다. 룻의 아내가 소돔 성을 뒤돌아보다 소금기 등이 된 형상의 기둥을 사해 서쪽 소금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해의 물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네랄의 보고로, 피부병에 특수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또한 이곳의 검은 진흙은 신경통 등에 특효라고 전해진다. 세계 각국에서 치료를 위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인근에는 이들을 위한 특수병원이 설립되어 있다. 순례팀은 사해에서 머드팩과 해수욕, 엔게디 스피드를 체험할 예정이다. 나소정(편집부)

모범 다락방 탐방 ① - 12교구 11.16 다락방

#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신동기 권사(12교구)

가을이라 가을 바람 솔솔 불어오고...

어둠이 깔린 가을밤에 수지 다락방에 귀하신 손님을 모셨습니다. 멀고 먼 나라 러시아, 터키,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오늘은 지구촌적인 다락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많은 분열과 내적 외적 죽음이 있는 세상!

무수한 종교가 공존하며 범람하고 있는 지구촌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하심은 쉬지 않고 온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청춘도 생명도 하늘에 내놓으시고 날마다 눈물로 십자가를 지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 그 구원사역에 미약하나마 수지 다락방에서 김광신 장로님을 모시고 다락방 식구들이 작은 위로의 밤을 열고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작고 아주 작은 12명의 제자들을 택해 인류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불쌍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동참하고자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 밤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어느 지역 보다 전쟁과 테러 우상숭배의 황폐함으로 상처입고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온전한 승리의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변화시킨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을 듣는 감동의 밤이었습니다. 2부 순서로 이인선 권사님께서 몇날 몇일 정성껏 준비한 요리로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으로 식사를 하였고 마지막 시간에는 촛불을 밝히며 온 지구촌의 흠어진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우리도 자신을 헌신의 자리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사역에 특별히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 드리며 ...

### 기도제목

- † 신문래 · 이은숙 선교사 (러시아) : 신학교운영의 정상화, 고려인 교회개척
- † 이항명 · 손혜신 선교사(이스라엘) : 언어습득, 자녀들 건강
- † 전광혜 선교사 (터어키) : 교회 재건축 마감, 교회 사용허가, 비자 연장

나의 하나님 -기도문

## 관계의 화목이 되게하소서

한상준 집사(11교구)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을 주께서 눈동자 같이 늘 지켜주시고 은혜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무덤고 지루했던 여름도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영원한 과거로 흘러가고 결실의 계절, 성숙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외로움, 고독을 벗어버리고 주께서 평안의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

주님과 관계의 가로막는 교만과 거짓을 기도로 이길 수 있도록 이 가을 용기를 주소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통해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관계의 화목이 되게하소서!

나의 하나님

## 처음으로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서문성(대학부)



지난 번 시청앞 광장에서 열렸던 전직전통제권 단독행사 논의 중단과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구국기도회는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 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이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

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지금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며칠 앞두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회가 어떤 일 때문인지 물어보았고, 전직전통제권 단독행사 논의 중단과 사학법 재개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모여서 기도드리면 과연 권

력 있는 자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까?' '우리의 기도로 무슨 변화가 오거나 할까?' 하는 의문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다만 나의 조국, 한국에 대해서 잘은 몰라도 저보다 신앙이 깊은 분들이 가신 다니까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전국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 해매게 될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을 빛으로 바로 이끌기 위해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외치며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은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비상구국기도회를 다녀와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리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찮게 얼마 전 가족과 함께 시작한 한밤중의 Q.T 시간을 통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게 되면서 성전 재건시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남쪽 유다가 멸망한 후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과정의 내용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반대와 비웃음, 심지어 헐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 된 공동체로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구획을 나누어 열심히 성벽을 재건 하였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이 일에 열정이 없거나 신실하지 못했다면 성벽을 완성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크리스천들을 비현실적인 사람들과 한다고 합니다. 현실을 직시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번 비상구국기도회를 참석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느헤미야처럼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하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국가에 대해서도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고 공동체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되길 바라며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서 그러나 언제든지 영적 전투에 나설 수 있는 사람으로 갖춰지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 비전2020

# 군 복음화에 앞장 서겠습니다

## 단결!

군선교사로 파송받은 이병 유건 호 신고합니다.

지난 6월 11일 주일 찬양 예배시 에 군선교사로 파송받아 입대한 저 는 벌써 100일 휴가를 나오게 되었 습니다.

그동안 신병훈련소의 고된 훈련을 거치면서 저에 게 신앙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고백합니 다.

입대 전 주일 찬양 예배시에 저를 위하여 이종윤 담임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주시고, 군선교사 파송 증과 함께 휴대용 성경책을 주신 것은 군생활은 물론 평생 잊을 수 없는 저의 보배로운 선물로 생각합니다. 입대 전 저는 부모님(유기찬 집사, 윤용미 집사)의 사랑과 여유로운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 했습니다. 입대와 동시에 급격한 생활의 변화 속에서도 남들은 힘겨워했지만 오히려 저는 자신이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로 지 신앙과 기도의 승리라 생각합니다.



입대 전 저를 위하여 VISION 2020 운동본부에서 군선교사 교 육을 철저히 받게 해 주신 것과, 군입대자(특히 군선교사)를 위한 도고와 저희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군인 의 기본인 사격이 잘 안 되어 면 회 오신 부모님께 기도 부탁을

했다니 놀랍게도 사격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내무반에는 저 이외엔 모두가 비 기독교인인 데 이등병인데다 제일 졸병인 제가 고참병들에게 주 일마다 교회가자고 권유할 정도로 담대함도 생겼습 니다. 또 고된 훈련 속에서도 더욱 건강이 좋아졌습 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앞으로 군선교사로 열심히 전도하며, 군복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 특히 VISION 2020 본부 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단결.

2006. 9. 27.  
이병 유 건 호 드림

편지왔어요

# 서울교회의 사랑을 잊지 못하여...

서울교회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께

할렐루야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는 조금도 변 함없이 사계절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이 큰 은혜를 입 게 하시네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세상을 바 라보면 기쁨도 소망도 끊어진 것 같지만 황금으로 물 들인 삼천리 금수강산 크고 작은 들녘을 바라보면 기 뻔과 소망이 넘치네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영원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서울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으로 사랑하며 존 경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생활과 사업으로 바쁜 금 쪽같은 시간을 서울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 며 봉사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부족한 좋은 이 귀한 일을 하시는 서울교회 이종 윤 목사님과 그리고 부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 님들을 사랑하며 새벽이면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9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지금까지 제 생 애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신 분들이 성공하지 못 한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 신과 충성스러운 신실한 마음에 넘치는 축복과 평강 이 있으리라 확신하며 서울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에 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목양교회 인태균 목사 올림

## 2006년 가을시즌 화요 정오음악회

10월10일 화요일 정오 본당에서

2006년 가을시즌 화요정오음악회가 시작된 다. 첫순서는 10월10일(화) 정오 본당에서 피아 노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로 피아노 - 김현주, 오르간-이경옥 선생이 선다. (관람석-본당3층)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06 사명자 대회 은혜롭게 진행되어 좋은 열매 풍성히 맺도록
2. Pilgrims' Vision Trip(성지순례단)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3. 피택자들의 시험과 면접을 통해 준비된 일꾼이 되도록
4. 개정된 사학법과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요구 철회되도록

## 교회외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

2006 사명자대회를 준비하며...

# 사명자대회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서명철 목사(사명자대회 지도)

해마다 현충일인 6월6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되는 '홍해작전'이 말씀과 기도의 작전이라면, 교회 설립 50일 전부터 50일 동안 진행되는 '사명자대회'는 기도와 전도의 작전이다. '사명자대회'는 모든 사람을 복음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며 전도 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우리 교회는 1991년 10월 첫 주부터 7주간 특별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헌 신을 다짐했고, 50일 째 되던 11월 24일에 설립예 배를 드렸다. 이것을 기념하여 해마다 이 기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와 전도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 모든 성도들은 50일간 계속되는 24시간 연속기도회와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하여 하루 두 번 씩(오전10시, 오후10시) 드리는 다니엘기도와 금요기도회, 특별새벽기도회, 선교사와 성도들을 위한 도고 등의 기도운동과 대신자 선정, 잃은 양 찾기 운동, 노방전도, 축호전도, 다락방과 교회 학교 배가운동 등의 전도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또 한 이 기간에 성경암송대회도 진행한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1일(수)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교 이사장·총장 일행의 방문을 받는다. 12일(목) 장로교 신학회 월례발표회를 소집한다.

■ 주간식당 봉사: 뱀피전도회(10월8일) 마리아전도회(10월15일)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 령 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